

## 인도네시아어 수동태의 구조와 의미: 한국어와의 구문 비교

임 영 호

### I. 들어가는 말

1차 언어에서 2차 언어로의 전환과정은 단지 외국어 기호 단위의 적절한 해석일 뿐이며 내용을 적절하게 전환해 번역이 될 수 있을지라도 두 언어 문장의 동의성(equivalence) 혹은 동일성(sameness)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나 범주 안에서도 완벽하게 성취될 수 없다고 Jacobson<sup>1)</sup>은 언급하고 있다.

하물며 언어구조가 상이한 2개의 언어 내에서 문체론적 동질성은 고사하고라도 1차 언어 텍스트의 정확한 내용을 2차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1차 언어에 대한 사전적의미의 파악은 기본적인 것이며 양 언어의 형태적인 면과 통사적인 면, 즉 문법적인 언어차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2차 언어로의 재구성에 있어 1차 언어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어는 오스트로네시아 (Austronesia) 혹은 말라유-폴리네시아 (Melayu- Polinesia) 어족에 속한 언어로 기본적인 통사구조가 SVO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우랄-알타이어어 (Ural-Altai)족

\*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부 초빙교수, boimhufs@hanmail.net

1) Jacobson, Roman. 1959. "On Linguistic Aspect of Translation." R.A. Brower(eds.). *On Transration*. pp. 232-239.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에 속하는 SOV 통사구조를 가진 한국어와는 문법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나 수식 구 구조 혹은 절 구조의 수식방법에 있어서 수식어가 후치되어 나타난다. 한국어와 기본적인 차이는 형태적인 면에서 접사를 이용한 파생어 생성은 품사의 형태를 변환시키는 것 이외에도 통사적 구조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며 문장전체의 의미를 변환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상이한 언어구조를 가진 두 언어를 번역 전환할 때 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인도네시아어의 수동태 구문(이하 수동문으로 표현) 구조이다.

인도네시아어를 처음 접하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어로는 처음 접하는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영문법의 영향을 받아 영어와 같은 문장 구조 (SVO)를 가진 인도네시아어의 수동문을 영어식으로 번역하려는 고정관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념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1차 언어인 인도네시아어를 2차 언어인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어의 수동문을 번역 전환하는데 있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장형식으로 번역되는 오류를 자주 범하고 있다. 이는 영어의 수동문과 동질의 구조가 한국어 문법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생기는 오류인 것이다. 즉, 영어의 수동문 속에 내포된 의미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자연스런 국어식의 표현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어의 수동문은 인칭 대명사와 동사의 접사형태에 따라 결정되며 내포하는 의미범주가 달라지는 것을 간과하기에 나타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수동문 구조의 이해부족 현상은 SOV 통사구조를 가진 한국어로의 전환 혹은 한국어를 인도네시아어로의 전환에 있어 각기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통사구조에 따른 문장의미를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즉, 한국어 표현상에도 어색한 ‘주어가 수동

동사의 동작을 받다/의미로 되어드'는 식의 예로 '*Buku itu saya baca.*'와 같은 문장은 '그 책을 나는 읽었다'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그 책이 나에게 의해 읽혀지다'와 같은 식으로 개념에 맞추려는 억지 한국어 번역 오류를 학생들은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도네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인도네시아어 수동문 형식이 텍스트 내에서 실제로 화자가 전달하고자하는 화제(topic)가 무엇인지에 따라 태(diatesis 혹은 voice)의 변화 및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 혹은 번역해야하는지를 인도네시아어 수동문의 유형과 의미과약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어-한국어 혹은 한국어-인도네시아어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번역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태란 절(clause) 내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와의 관계 사이에서 동사가 기술하는 행위에 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이다. 태를 논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 '능동(active)'과 수동(pasive)으로 나뉘며 동사의 형태와 직결되어 능동 동사 혹은 수동 동사의 형태를 갖는다. 태와 관련하여 Lyons(1968:372)는 동사의 한 범주로서 전통 용어로 'diatesis'를 사용하였다. 능동 혹은 수동 동사형을 언급함에 있어서 목적어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타동문제와 더불어 능동문과 수동문에 관한 연관 관계를 탈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능동 동사와 수동 동사는 능동문 및 수동문에 있어 핵심적인 서술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Uhlenbeck, 1978; Ras, 1982; Alieva, 1991).

Alieva (1991:340)는 그의 공저에서 타동사에 의해 언급되는 명제의 가장 중요한 표시 부분은 능동문의 서술 부분이거나 *di-*, *ter-*, *ke-*/*-an*과 같은 접사를 사용한 동사 혹은 접두사가 생략된 수동문 형태의 서술어라고 했으며 언급한 서술어를 가진 동사의 형태에 따라 능동문, 수동문, 그리고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가 행위자일 때 나타나는 접두사 생략형의 인칭 수동문 구조로 분류했다.

능동 혹은 수동 형태의 동사는 능동문이나 수동문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 문장 내에 존재하는 핵심 서술어가 능동형태의 동사를 취하면 능동문이요 수동 형태를 취하면 수동문인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말한다면 능동문은 핵심 서술어가 능동형태의 동사를 취하며 수동문은 핵심 서술어가 수동 형태의 동사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동사의 형태와 문장 구조의 형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능동문과 수동문의 관계에 있어 Ras (1982:64)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기준으로 능동문과 수동문을 분류했다. 즉 행위자 측면에서의 행위를 서술하는 문장은 능동문이요 피행위자 혹은 행위대상자 측면에서 서술되는 문장은 수동문이라고 했으나 이는 Uhlenbeck (1978)이나 Alieva (1991:34)의 설명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능동문에서의 주체인 주어는 능동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며 피행위자 혹은 목적대상에게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인 것이다.

통사적 측면에서 보아 Verhaar(1978)는 인도네시아어의 언어구조를 분석하기위하여 형태론, 통사론 및 의미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구성성분의 통사적 기능, 범주 역할로 아래와 같이 분석을 하였다.

통사적 기능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통사적 범주	명사	동사	명사	명사/형용사 등
통사적 역할	행위자 (생명체)	행위, 과정 (동작/상태/과정)	피행위자 (생명체/사물)	시간/장소/방법

위와 같은 분석 방법은 인도네시아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통사이론의 초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수동문의 분석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통사적 기능과 역할과의 상관관계는 인도네시아어의 표준 어법을 이해하고 능동문 구문과 수동문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필수적인 기본 이론이다.

Verhaar(1978)의 이론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어의 능동문과 수동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보충 이론으로 화제와 논평 (topic-comment)의 개념은 필수 불가결한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말의 시점 혹은 화제를 이루는 것은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주어 혹은 행위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타동사를 취하는 능동문의 서술어로 동사의 형태는 접두사 *me-*를 취하며 이 형태소의 의미는 주어의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수동문의 화제를 이루는 것, 즉 문장구조에 있어 앞에 위치하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통사적인 면에서 주어로서 행위의 목적대상 혹은 동작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인도네시아어의 여러 수동문 구조 형태에 대하여는 이어서 설명할 것이다.

Sandra Chung(1989)은 인도네시아의 수동문은 1,2인칭의 수동문 형식과 3인칭 형식의 두 방법으로 나타나며 동사의 형태적 요소와 구문구조 형태가 달라지며 의미적으로는 통상적인 능동문의 주어가 수동의미를 갖거나 이와는 달리 능동문의 목적어를 강조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동문의 의미를 구분한 것은 전통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이론이다.

### III. 인도네시아어 수동문의 형식과 의미

아래의 문장과 같이 문법적 틀을 갖추지 못하고 동사의 어근형태 자체가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을 어휘수동 문장이라 하는데 이런

동사는 극히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어휘 수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통사적 기능면을 볼 때 인도네시아 수동문은 크게 능동 수동 전환이 가능한 형태와 불가능한 형태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1) - Tomy lahir di Bogor. (또미는 보고르에서 태어났다.)  
 또미 태어나다 -에서 보고르

### 1. 능동문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수동문

접두사 *ke-/-an* 혹은 *ter-*를 취하는 동사 형태로 자동사 형태로 분류된다. 접사에 의해 파생된 이런 부류의 동사들은 의미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갖으며 주어는 동사의 피행위자 역할을 한다<sup>2)</sup>. 각 접사는 한국어에 있어 피동의 의미로 분리접사 *ke-/-an*은 ‘동사의미의 고통을 당하다/동사의미의 대상이 되다’의 의미를 가지며 접두사 *ter-*는 ‘우연, 가능성, 무의식’등을 나타내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수동의 의미를 갖는 자동사 *kena*를 사용하여 이어 서술되는 동사 혹은 명사에 의해 ‘당하다’란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태의 문장 구조도 있다.

- (2) Pintu itu terbuka. (문이 열려있다.)  
 문 그 열려있다
- (3) Dompok dia tertinggal di kantor.  
 지갑 그 놓아두다 -에 사무실  
 (그의 지갑을 사무실에 놔두었다.)
- (4) Mobil BMW tidak terbeli<sup>3)</sup> oleh kami.  
 자동차 BMW 없다 살 수 있다 -에의해 우리

2) 한국어의 피동문 형태와 유사한 유형으로 이런 부류의 동사를 피동사라고 한다.  
 3) 접두사 *-ter*의 의미특성상 수동의 의미와 함께 가능성/능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피행위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팔리지 않은 것이고 행위자의 기준으로는 살 능력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BMW자동차를 우리는 살 수 없다.)

- (5) Gedung itu kelihatan dari sini.  
 건물 그 보인다 -로부터 여기  
 (그 건물은 여기서 보인다.)
- (6) Saya kecopetan jam tangan di bus.  
 나 소매치기당하다 손목시계 -에 버스  
 (나는 버스에서 소매치기 당했다.)
- (7) Amin kena pukul. (아민은 맞았다.)  
 아민 당하다 때리다
- (8) Yanto kena pisau. (얀또는 칼에 베였다.)  
 얀또 당하다 칼

## 2. 능동 수동의 전환이 가능한 수동문

인도네시아어의 수동문은 주어의 종류에 따라 2 가지형식으로 나타난다.

1) 주어가 1인칭 대명사 (saya, aku, kami, kita, ku), 2인칭 대명사(kamu, engkau, Anda, kau, kalian)일 경우;

능동문의 **주어부 +서술어부 +목적어부**는 수동문에서 **목적어부 +주어부 +서술어** 의 어순으로 바뀐다. 통사적 역할 면에서 볼 때 피행위자가 주어부분으로 도치되며 능동문에서의 접두사 *me-*를 취했던 동사 형태 접두사가 생략이 되고 행위자 주어는 위치상 변화가 없다.

- (9) Saya membaca buku itu. (나는 그 책을 읽다.) (능동문)  
 나 읽다 책 그  
 ---> Buku itu saya baca. (그 책을 나는 읽다.) (수동문)  
 책 그 나는 읽다
- (10) Kami memukul anjing itu. ---> Anjing itu kami pukul.  
 (우리는 그 개를 때리다.) (그 개를 우리가 때리다.)

- (11) Kamu membeli koran ini. ---> Koran ini kamu beli.  
 (너는 이 신문을 사다.) (이 신문을 네가 사다.)  
 (12) Aku membuang sampah itu. ---> Sampah itu aku buang.  
 (나는 그 쓰레기를 버리다.) (그 쓰레기를 내가 버리다.)<sup>4)</sup>

이때 능동문에서 동사 앞에 위치하던 부정사 (*tidak*) 혹은 양태부사들은 수동문에서는 주어 바로 뒤에 위치하는데 이는 양태부사들은 새로 전환된 구문에서 서술어 부분을 제한하는 보조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달리 설명하자면 인도네시아 문장구조의 특성상 수동문에서 *saya baca*를 행위자와 동작과의 강한 결합 상태의 서술어로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양태부사를 삽입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양태부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lagi*/--하는 중이다, *sudah*/이미--하다, *belum*/아직--하지 못하다, *sedang*/--하는 중이다, *mulai*/시작하다, *masih*/아직도, 여전히--하다, *selalu*/항상, *sering*/--한 적이 있는, *akan*/ --할 것이다, *bisa*/--할 수 있다, *dapat*/--할 수 있다, *boleh*/--해도 좋다, *harus*/해야한다, *pernah*/--한 적이 있다, *jarang*/거의--하지 않다, *cuma*/오직, 단지 --하다, *hampir*/거의--하다, *hanya*/단지, 오직.

- (13) Saya tidak/sudah membaca buku itu. (능동문)  
 나는 부정사/이미 읽었다 책을 그  
 (나는 그 책을 읽지 않다/나는 그 책을 이미 읽었다.)  
 => Buku itu **tidak** saya baca (수동문)  
 책 그 부정사 나 읽다  
 (그 책을 나는 읽지 않다.)  
 => Buku itu **sudah** saya baca (수동문)  
 책 그 이미 나 읽다  
 (그 책을 이미 나는 읽다.)

4) 이와 같은 어근 형태로의 번역은 인도네시아어는 시제가 없는 언어형식으로 단일한 문장으로는 시제를 결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4) Saya **akan** menjemput dia jam 7. (능동문)  
(나는 그를 7시에 마중 나갈 것이다.)  
=> Dia **akan** saya jemput jam 7. (수동문)  
(그를 내가 7시에 마중 나갈 것이다.)
- (15) Kami **sedang** mencuci jendela. (능동문)  
(우리는 창을 닦고 있는 중이다.)  
=> Jendela **sedang** kami cuci. (수동문)  
(창을 우리가 닦고 있는 중이다.)

위와 같은 수동문 형태의 실질적인 예는 구어체에서 3인칭대명사, 친족관계, 호칭을 나타내는 단어들(*ayah*/아버지, *ibu*/어머니, *adik*/동생, *Bapak*/-님, *Saudara*/-군, -양, 씨, *Nyonya*/부인 등)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 (16) Pendapat saya ayah setuju. (능동문)  
(나의 의견을 아버지가 동의 하셨다.)
- (17) Soal itu mereka setuju. (그 일을 그들이 동의했다.)
- (18) Radio itu telah dia perbaiki. (그 라디오를 이미 그가 고쳤다.)

이런 현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현상은 1 인칭과 2 인칭의 축약형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동사 앞에 붙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 (19) Roti itu **kubeli**. (그 빵을 내가 사다.)  
빵은/을 그 내가 사다
- (20) Apakah mobil itu **kaubeli**?  
의문사 자동차는/를 저 내가 사다?  
(저 자동차를 네가 샀나?)

2) 주어와 3 인칭일 경우;

능동문의 주어부 + 서술어부 + 목적어부는 수동문에서 목적어부 + 서술어부 +(oleh) + 주어부 순서로 바뀐다. 통사적 역할 면에

서 볼 때 동사를 기준으로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순서가 바뀌면서 이에 상응하는 접두사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즉, 접두사 *me-*는 생략되고 *di-*가 사용되며 주어가 3인칭대명사 *dia*일 경우에는 *dia*가 *di-*/*-nya*로 바뀔 수도 있으며, *dia*가 일반적인 주어일 때나 행위자를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는 자주 생략된다.

- (21) Ayah memanggil Rustam. (능동문)  
 아버지 부르다 루스팜  
 (아버지가 루스팜을 부르다.)  
 => Rustam dipanggil (oleh) ayah. (수동문)  
 (루스팜 호출되다 아버지)  
 (루스팜은 아버지에게 호출되다/루스팜을 아버지가 부르다.)
- (22) Dia mencuci mobil. (능동문)  
 (그는 자동차를 닦다.)  
 => Mobil dicucinya. (수동문)  
 (자동차가 그에게 닦이다(?)/ 자동차를 그가 닦다.)
- (23) Adik saya menulis surat. (나의 동생은 편지를 썼다.)  
 => Surat ditulis (oleh) adik saya.  
 (편지가 내 동생에 의해 쓰였다./ 편지를 내 동생이 썼다)
- (24) Dia memukul anjing itu. (그는 저 개를 때렸다.)  
 => Anjing itu dipukul (oleh) dia./ Anjing itu dipukulnya.  
 (그 개는 그에게 맞았다./ 그 개를 그가 때렸다.)
- (25) Mereka telah menonton film baru.  
 (그들은 이미 새 영화를 보았다.)  
 => Film baru telah dinonton (oleh) mereka.  
 (새 영화가 그들에 의해 시청되었다./ 새 영화를 그들은 이미 시청했다.)

#### IV. 인도네시아어 수동태 구조와 한국어 문장구조 비교 및 적용

##### 1. 인도네시아어 수동태 구조와 한국어 문장구조 비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어는 SVO의 문장구조로 이루어 있으며 동사를 중심으로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어순관계는 능동문 혹은 수동문의 형태 및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 수동문의 의미는 2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피행위자가 동작을 받는 혹은 동작이 수행되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로 화자가 피행위자를 화제로 삼아 명제를 시작하려는 즉, 피행위자를 강조하려는 의도에 의해 서술되는 문장형식이다. SVO 문장구조를 갖는 언어는 문장 서두에 언급되는 주어가 화제의 대상이 됨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다.

(26) **Amin** membaca majalah. (아민은 잡지를 읽는다.)

(27) **Majalah** dibaca Amin. (잡지를 아민이 읽는다.)

위의 예문에서 (26)과 (27)과 같은 서술형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할 것이다.

(26)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

(26a) **Siapa** yang membaca majalah? (누가 잡지를 읽느냐?) - **Amin**.

(27)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

(27a) **Apa** yang dibaca Amin? (무엇을 아민이 읽느냐?) - **Majalah**.

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인도네시아어의 능동문은 담화의 화제와 논평 관점에서 행위자가 화제가 되는 형식 즉, 행위자를 강조하는 형식이며 반면에 수동문은 피행위자를 화제 삼아 강조하는 형식인 것이다.

아래의 문장에서처럼 일반적인 수동문의 개념으로 주어(피행위자)가 ‘당하다’, 혹은 ‘동사 의미의 동작을 받아 수행하다 혹은 ‘동작이 주어에게 행해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거나 혹은 한국어의 피동동사 형태가 존재하여 주어가 ‘--동사의 동작에 당하다’라는 뜻을 내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위자 주어가 한국어로 ‘당하다’란 의미를 갖으며 한국어의 피동동사로 표현 될 수 있을 때에는 수동의미의 같은 형식 즉 피동동사를 이용한 피동문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나 (29) 예문에서는 비록 행위자 주어가 ‘당하다’ 라는 의미지만 능동문의 동사 형태를 바꿔 한국어에 맞는 표현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 (28) Polisi menangkap pencuri.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경찰 잡다 도둑
- (28a) Pencuri ditangkap polisi.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도둑 잡히다 경찰
- (29) Yanto memukul Rani. (얀또는 라니를 때리다.)  
 얀또 때리다 라니
- (29a) Rani dipukul Yanto. (라니가 얀또에게 맞다.)  
 라니 맞다 얀또

목적대상을 강조하는 방법 혹은 부드러운 명령형식으로 수동문 형식을 자주 취하는 방법은 자바인의 언어습관에서 볼 수 있다. 명령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한 형식으로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생략하지만 행위자인 상대방에게 목적어에 대한 어떤 동작을 직접 수행하게 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결국 SVO 언어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형식이다. 그러나 사실 행위자를 염두에 두면서 목적에 대한 동작이 실행되기를 지시하면서 실제로는 목적대상을 문두에 두어 표현하는 명령형식은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수동문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드러운 간접 명령 형태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어의 간접 명령문 형태는 한국어로 피동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능동 명령문인 (30)과 (32)는 수동 명령문인 (31)과 (33) 형식으로 바뀌면서 직접 혹은 간접 명령문 형태로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문맥에 따라 뉘앙스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똑같은 형식의 명령문으로 표현된다.

1) 일반 명령문 형태:

- (30) Tolong *ambilkan* air dingin, Yanti!  
부탁하다 가져다주다 물 찬 안띠  
(찬 물 좀 가져다줄래, 안띠야.)
- (31) Toro, *cucikan* mobil saya sekarang!  
또로 닦아주다 자동차 나 지금  
(또로, 지금 자동차를 닦아줄래.)

2) 수동 명령문 형태:

- (32) Air dingin *diambilkan*, Yanti!  
물 찬 가져오다  
(찬 물 좀 가져다줄래, 안띠야.)
- (33) Toro, mobil saya *dicucikan* sekarang!  
또로 자동차 나 닦이다 지금  
(또로, 지금 내 차 좀 닦아줄래.)

반면에, SOV의 문장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어는 격조사의 발달로 주어나 목적어 혹은 행위자나 피행위자의 어순 관계 즉 문법 규칙에 의하지 않고 동사를 파생시켜 만든 피동사를 이용한다. 피동사는 일

부 동사의 어간에다 피동형 어미 ‘이/히/리/기’를 붙여서 만드는데, 어떤 의미를 가진 동사 또는 어떤 음절로 끝난 동사에 어떤 의미를 붙인다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휘 단위로 기억해야 한다 (백봉자 1999: 39-40). 일부 피동형 어미를 사용한 아래의 예문을 보면 한국어의 능동문 및 피동문 표현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3) 한국어의 능동과 피동

(34) (철수, 지렁이, 밟다/밟히다)

(34a) 철수가 지렁이를 밟았다.

(34b) 지렁이가 철수에게 밟히었다/밟혔다.

(35) (철수, 순희, 때리다/맞다)

(35a) 철수가 순이를 때렸다.

(35b) 순이가 철수에게 맞았다.

(34)는 능동 표현과 피동표현의 관계인데, 똑같은 일(34a)와 (34b)는 ㄱ, ㄴ을 두고 시점에 따라 표현이 선택된 것이다. 곧 [행동주-대상]의 의미역 틀에 ‘행동주’에 시점을 두고 주어로 실현시키면 능동 표현 (34a) 및 (35a) 문장이 되고, ‘대상’에 시점을 두고 주어로 실현시키면 피동 표현 (34b) 및 (35b) 문장이 된다.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의 구조가 다르다 (인도네시아어 :SVO, 한국어: SOV), 둘째; 인도네시아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행위자) 혹은 목적어(피행위자)의 어순 나열이 중요하다. 즉, 문장 순서에 의해서 행위자와 동작관계가 결정되면 이는 능동문과 수동문 형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문장이 목적어를 갖고 있을 때, 한국어에 있어서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목적어가 앞으

로 나와 있어도, 격조사의 기능에 따라 의미변화가 되지 않으며, 문장 전체의 기본 의미는 변화지 않는다. 또한 동사의 형태가 피동형으로 바뀌지 않는 한, 문장의 태(능동문 혹은 피동문)에는 변화를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어에서는 격조사가 없는 대신 문장내의 구조 변화 (피행위자 + 동사의 순서)로 능동문과 수동문이라는 문장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서술어를 이루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도 능동형 접두사 *meN-*을 사용하느냐, 혹은 수동형 접두사 *di-*나 접두사의 생략이란 형태를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문장 형식으로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하여 목적어를 강조하는 식의 표현을 할 때,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수동문 형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형식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은 인도네시아어를 한국어로 혹은 한국어를 인도네시아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장의 오류 및 의미의 오류를 흔히 범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문 (28)과 (29)의 한국어 번역문에서 보면 ‘경찰’과 ‘도둑’의 어순과는 관계없이 각 문장성분에 붙은 격조사는 이미 주어와 목적 혹은 행위자와 피행위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화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화자가 전달하고자하는 근본적인 의미의 전달 관점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결과를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언급한 설명에서 보듯이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간에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어의 수동문 혹은 한국어의 피동문장 서술방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할 수 있다.

- 1) 인도네시아어에서는 통사적 역할 즉, 동사를 중심으로 행위자와 피행위자간의 어순이 수동문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다.

- 2) 행위자와 피행위자 간 어순결정은 능동문과 수동문을 결정하는데 1,2인칭 대명사일 경우와 3인칭 대명사일 경우의 어순이 달라지며 이 때 동사의 접두사 형태도 결정된다.
- 3) 인도네시아어 수동문은 의미상 '목적대상이 당하다' 혹은 피행위자를 화제삼아 문두에 위치하여 강조하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로 전환될 때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 한국어의 피동형태나 아니면 단순한 목적어 혹은 피행위자를 화제로 삼기 위하여 강조하는 형식으로 전환되어야한다.

## 2. 관계사 'yang' 구문의 능동 및 수동 구문 적용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인칭이나 격의 구별 없이 단 하나의 관계사 'yang' 이 사용되는데 문장을 연결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사용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수식 절을 이끄는 관계사 'yang' 은 수식 대상의 역할에 따라 즉 행위자나 피행위자나에 따라 결정이 된다. 즉, 수식어구가 후치되는 인도네시아어의 구문 구조상 선행사 역할을 하는 요소의 통사적 역할이 행위자인가 혹은 피행위자인가에 따라 동사의 태가 결정된다. 선행사가 행위자 역할을 하면 능동문의 형식을 취하며 피행위자 일 때는 수동문 구조를 취한다.

이는 수식 절의 형식을 선택하는데 수동문 구조를 생각한다면 동사의 형태는 물론이고 인칭에 따른 정확한 형식을 취해야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처럼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형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어에서는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어순관계에 따라 이에 맞는 동사의 접두사 형태가, 즉 술어의 형태(동사의 능동형 혹은 수동형)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행위자(목적어)가 관계사 'yang' 앞에 왔을 경우에는 그 이하 문장은 수동문 구조의 형태를



취하며, 반대로 행위자(주어)가 관계사 'yang' 앞에 왔을 경우는 뒤 문장은 능동문 구조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주어 (1, 2인칭과 3인칭에서의 수동문 형식의 차이)에 따른 능동문과 수동문의 유형을 상기하면서 아래 예문에서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구문 구조의 변화 및 술어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자.

1) 1, 2인칭 수동문 구조

- 내가 산 잡지 ==> **majalah yang saya beli**  
피행위자 (수동문 구조)  
**\*majalah yang saya membeli**
- 잡지를 산 나 ==> **saya yang membeli majalah**  
행위자 (능동문 구조)  
**\*Saya yang beli majalah**
- 네가 산 잡지 ==> **majalah yang kamu beli**  
피행위자 (수동문 구조)  
**\*majalah yang kamu membeli**
- 잡지를 산 너 ==> **kamu yang membeli majalah**  
행위자 (능동문 구조)  
**\*kamu yang beli majalah**

2) 3인칭 수동문 구조

- 아버지가 산 잡지 ==> **ayah yang membeli majalah**  
행위자 (능동문 구조)  
**\*ayah yang dibeli majalah.**

- 잡지를 **산** 아버지 ==> **majalah** yang dibeli oleh ayah  
    피행위자           (수동문 구조)  
    **\*majalah yang beli ayah**

위의 예문들을 볼 때, 수식절의 구문구조에 있어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간추려 보면; 첫째, 인도네시아어에서는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어순에 따라 동사의 형태를 능동 혹은 수동 형태를 취하여야한다. 즉, 선행사와 수식절의 관계는 선행사의 통사적 역할에 따라 능동문 혹은 수동문 구조와 일치하여야 한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일반 수동문에서와 같이 격조사를 사용함으로써 행위자와 피행위자와의 관계는 정확하게 설정이 되며 동사의 형태는 인도네시아어에서의 ‘yang’과 같은 특별한 관계사를 설정하는 대신 동사의 어근에 형용사적 형태소 ‘-n’을 첨가하여 변화시켜 행위자나 피행위자의 어순에 관계없이 같은 동사 형태를 취한다. .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어의 수식관계에서 보여주는 능동문과 수동문 구조의 관계는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어순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식구조는 화제가 되는 선행사의 통사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를 한국어에 응용하여 번역을 할 때 문맥에 따른 의미 선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 V. 맺는말

인도네시아어에서 동사의 형태적인 면을 볼 때 수동동사란 주어 가 문장에서 피행위자, 목적대상, 혹은 성과를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동사는 일반적으로 접두사 di-, ter-, ke-/-an, 접두사 di-

의 생략형태 혹은 ‘당하다’란 어휘적 의미를 가진 kena란 단어가 선행된다. 아울러 접사 ter- 혹은 ke-/-an은 수동의 의미 이외에도 가능성, 무의식적인 행위, 우연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의 수동문 구조에서 동사의 목적 혹은 행위 대상이 동사보다 선행되고 동사는 형식이나 의미상 피동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적대상을 강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수동문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어 수동문 구조는 단순한 동사형태의 성격에서 수동문 구조가 형성되는 것 보다는 통사적인 문장 구성성분들의 어순 (SVO), 즉 주어 (행위자/피행위자), 서술동사 (능동형/피동형)의 어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의 의미적인 관계는 화제와 논평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강조하고자하는 어느 대상이 선행하는가에 따라 동사의 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수동문 구조의 특성은 인도네시아어의 관계사 ‘yang’을 수반하는 수식 절 형태에서 그 형식이 분명해진다.

인도네시아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인도네시아어로 전환하는데 정확한 어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문장구조로의 표현으로 인한 의미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주제어: 태, 수동, 관계사, 화제, 논평.

#### 참고문헌

- 노마히데키. 2002.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태학사.  
 백봉자. 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시정곤. 1998.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이춘근. 2002. 『문법교육론』. 이화문화사.

- Alieva, N.F. et al. 1991. *Bahasa Indosneisia, Deskripsi dan Teori*. Yogyakarta: Kanisius.
- Alwi dkk. 1998. *Tata Bahasa Baku Bahasa Indonesia*. Jakarta: Balai Pustaka.
- Aritonang, Buah, et al. 2000. *Verba dan pemakaiannya dalam Bahasa Indonesia*. Jakarta: Pusat Bahasa Departemen Pendidikan Nasional.
- Jung, Sandra. 1989. 'On The Subject of Two Passives in Indonesia' in *Serpih-serpih telaah pasif bahasa Indonesia*. Jakarta: Penerbit Kanisius.
- Kaswanti Purwo, Bambang (ed.). 1989. *Serpih-serpih telaah pasif bahasa Indonesia*. Jakarta: Penerbit Kanisius.
- Kridalaksana, Harimurti. 1985. *Tata bahasa Deskriptif Bahasa Indonesia: Sintaksis*. Jakarta: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 Lyons, John.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s, J.J. 1982. *Inleiding tot het Modern Javaans*. s-Gravenhage: Koninklijk Instituut voor Taal-, LandenVolkenkunde.
- Subroto, Edi dkk. 1994. *Konstruksi Verba Aktif-Pasif dalam Bahasa Jawa*. Jakarta: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 Uhlenbeck, E.M. 1978. *Studies in Javanese Morphology*. The Hague: KITLV.
- Verhaar. J.W.M. 1978. *Pengantar Linguistik*. Yogyakarta: Gadjja Mada Press.

Abstract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ndonesian  
passive voice:  
a comparative study with Korean

Im, Young-Ho

In translating one language into another language having the same structures, translators often find some obstacles because each language has differences either in the morphological, syntactical or lexical ways. If the structures of both languages are different, translating them will be more complicated.

Korean language with the SOV structure is much different from Indonesian language, which is based on SVO structure. Passive sentences in particular, the passive sentences of Indonesian language are divided into two. First, the sentence depends on the personal pronominal and has a transitive verb. The verbs of the sentence are preceded by prefix *di-* or *zero morphemes*. On the other hand, the other form of passive verb is an intransitive verb that is preceded by prefixes *ter-*, *ke/-an*, or preceded by the word *kena*.

Not only the differences in forming the sentence, the voice of Indonesian language is connected with the topic and comment. It depends on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and it gives much

influence in translating the language into Korean language. In the other words, the Korean language has a case, because it uses affixes attached to the subject and the object, but they do not affect the passive and active sentences even though the order of the words changed. It happens very frequently! It has tendency to have translators to make mistakes in translating both languages.

Key words : voice, passive, relative word, topic, comment.

© 2006 KASEAS, All Rights Reserved.